‘광주시교육청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 5명 조사

前 교육장·교장 등 사법처리 촉각

광주경찰 “업체 관계자 금품 로비 진술 확보”

‘광주시교육청 일선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전 교육장과 교장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동부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A씨를 포함한 행정직 공무원 2명, 전직 학교장 2명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교육장 재직 당시 현 안사업비를 일부 학교에 지원해준 뒤 해당 공사업체가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로부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의 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학교장·교육청 직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직 학교장 출신 2명과 동부지원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등 4명에 대해서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학교장 출신 2명은 A씨가 교육장 재직 당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 재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뇌물 금액과 수수 횟수 등을 따져 사법처리(뇌물수수 및 공여, 또는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법 처리자를 제외하고도 비위혐의가 드러나 기관통보 조치될 공무원만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 지, 몇 명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말 모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광주시 초·중·고 150곳에 공문을 보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0만~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청했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원 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서구청 안일 대응 … 도로서 초등생 버스에 치여

광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가 여자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불과 3주 전 한 시민이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던 곳이어서 구청 측의 안일한 대응이 사고를 불러 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44)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10)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박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기사 김씨는 경찰에서 “직진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 나온 박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가 난 상무시장 앞 도로는 장이 열리는 매주 금요일 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붐볐으며, 이날 역시 같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도로는 한 주민이 20여일 전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서구에 제기했던 곳으로 확인돼 구청 측의 무관심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중이지만 제한된 인원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참 〈8285〉 김종두

전남도교육청 청렴도 평가한다

고위공직자 430명 대상

전라남도교육청이 고위공직자 43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4일 “올 상반기 내에 전남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자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본청 4급 이상 과장급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초·중·고등학교장 등 모두 430여명이다.

평가는 직무청렴성과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평가단의 설문평가와 행동강령 위반 및 준법성 등 4개 항목을 점수화 한 계량평가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인사 이동시 마다 청렴서약을 받을 방침이다. 청렴교육도 1년에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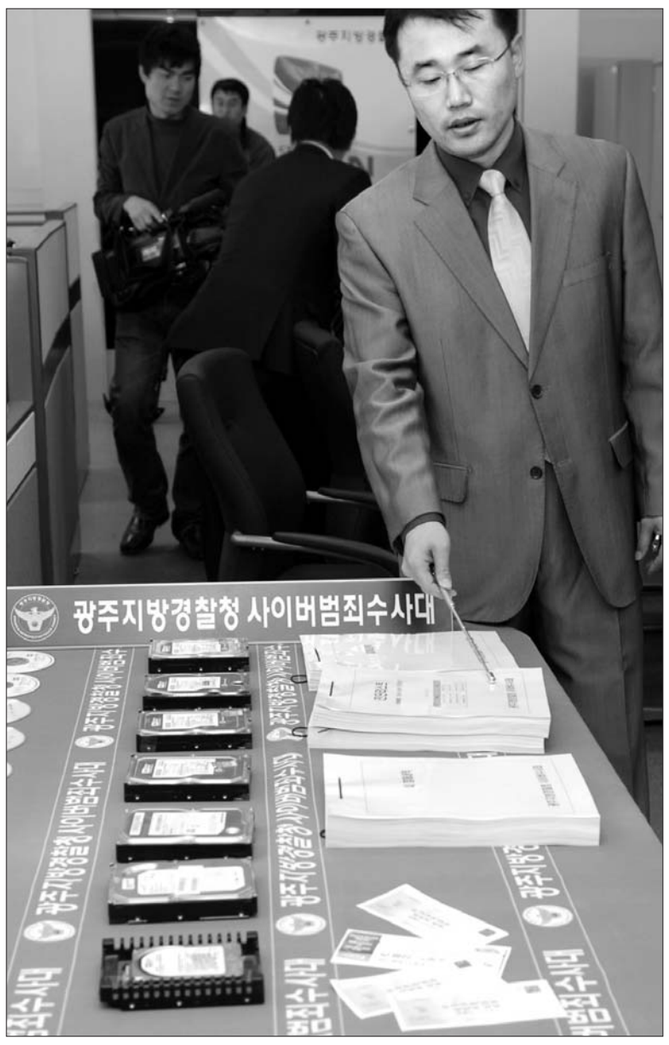
신안 가거도서 어선 전복 4명 실종

4일 오후 2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목포선적 9.77t 연안자망 608 대하호(선장 한송식·52)가 전복된 채 목포해경 경비정에 발견돼 해경이 수색작업에 나섰다.

이 어선에는 선장 한씨를 포함해 김상철(61), 박철희(52), 고석호(55)씨 등 선원 4명이 타고 있으며 발견 당시 완전히 뒤집혀 스크루만 보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헬기, 122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하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목포항을 출항해 오는 12일 입항 예정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선장 한씨가 ‘안개가 많아 정박하고 있다’는 가족과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4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청사 사무실에서 가짜 PC백신과 관련, 증거품으로 압수한 CD와 서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PC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속여

가짜 백신 판매 26억 가로채

광주경찰, 3명 영장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속여 휴대전화 결제를 유도한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가짜 백신을 유포해 네티즌 40만명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가짜 백신 사이트 운영자 옥모(30)씨와 개발자 정모(34)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신 유포자 이모(3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려 놓고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을 가장한 ‘피씨 OO’, ‘닥터 O’ 등 가짜 백신을 대량 유포한 뒤 정상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처럼 속여 12만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자 정씨는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대가로 옥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객님의 PC는 위험한 상태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팝업 창에 띄운 뒤 이용자가 팝업창을 클릭하면 무조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게 해 휴대전화로 월 9900원씩 자동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가짜 백신으로 안철수연구소의 ‘V3’와 세계적으로 성능이 검증된 ‘카스퍼스키’(Kaspersky) 백신 프로그램까지 악성코드로 검출해 PC사용자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프로그램 설치 1건당 40~5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포자를 모집해 인터넷 팝업광고 등을 통해 가짜 백신을 유포하거나 인기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사이트로 유도한 후 제휴 프로그램으로 묶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등산 공사현장 농성 노조원 51명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4일 어등산 관광단지 공사현장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광주·전남 건설기계노조 소속 노조원 5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주)어등산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표준근로시간 준수(8시간) ▲장비사용단가 인상 ▲안전대책 확보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하던 노조원 51명을 연행했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농성을 벌였었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속한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시 도시공사는 장시간 노동과 미흡한 안전조치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 전단 무더기 부착 나이트클럽 대표 징역

광주지법 선고

광주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전단지 3만여장을 부착한〈광주일보 2010년 9월 14일 6면〉 나이트클럽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4일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나이트클럽 대표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나이트클럽의 홍보 등을 위해 대량의 광고물을 부착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께 광주 모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시내 전 지역의 전봇대와 담 등에 광고물 2만6000여장을 강력 접착제로 부착하는 등 한 달여간 전단지 3만1000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5개 구청은 이 광고물에 대한 제거 비용이 모두 2억2000여만원에 달하자 정씨를 고발했다.

경찰도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오픈할 때마다 전단지 수만장이 시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몸살을 앓아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태료나 벌금형 등으로 낮아 불법 광고물 부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촌 빈집털이 24회 2000만원 금품 훔쳐

광주동부경찰은 4일 농촌의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임모(2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김모(여·5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모두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나주가 고향인 임씨는 농민들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간다는 점을 노리고 광산구와 나주 등 농촌지역의 빈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3년간 복역한 임씨가 최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임씨가 갖고 있던 귀금속 3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성추행범 “아동 본 뒤 나도 모르게…”

쌍나팔

○…모텔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고 나온 30대가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경찰서행.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1)씨는 지난달 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원룸 계단에서 대학생 이모(여·20)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전날 밤 인근 모텔에서 홀로 잔 박씨는 성인방송을 시청하고 나온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밤새 성인물을 시청하다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여성을 뒤따라갔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